

# SRT 승차권 개인간 거래 이중피해 주의보

### 여름 휴가철 맞아 중고 사이트 '대신 구매' 등 불법거래 기승 적발돼 최고 30배까지 부가운임...승차권 정당하게 구입해야

SRT로 인해 서울이 부족 가까워졌다.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 '도심 휴가'가 인기를 끌고 있다. 기본 좋게 떠나는 서울 여행. 하지만 SRT 승차권 불법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 (주)SR(사장 이승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에게 SRT 승차권 불법 거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주말이나 휴가 기간 피크시간대 SRT 승차권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중고 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되는 승차권을 구매하면 대금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부정승차로 간주돼 부가금까지 내야 하는 이중 피해를 볼 수 있다. 승차권 캡처 사진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판매를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판매자가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승차권을 출력하게 한 뒤, 반환 처리하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이미 발권한 승차권은 무효표가 된다. 반환된 표나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원래 운임과 함께 최소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철도사업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원래 가격 보다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판



SR 정당승차권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 영상.

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압표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예약 취소되는 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SRT 앱, 홈페이지(www.srail.co.kr), 전국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SR 관계자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 삭제 요청하는 등 부당 승차권 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여행객들이 공식 채널에서 승차권을 구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SR은 정상적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열차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승차권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8월 1일부터 기준운임의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우치동물원 한국수달 보러 오세요" 30일 광주시 북구 우치공원동물원 해양동물관에서 한국수달 '수리'와 '달이'가 방사장을 돌아다니다 먹이를 찾고 있다.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마스코트와 이름이 같은 이들 수달은 지난 4일 서울대공원에서 들어왔으며 적응기간을 거쳐 이날 처음 관람객에게 공개됐다. <광주시 제공>

##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 김규현 광주경찰청장 취임

김규현(55·경찰대 2기·치안감·사진) 제 14대 신임 광주경찰청장은 30일 열린 취임식에서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며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광주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일하는 방식도 시민 공동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고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는 광주경찰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또 동료 경찰들에게는 "좋은 경찰은 빨리 움직이고, 뛰어난 경찰은 먼저 움직이지만, 위대한 경찰은 마음을 움직인다"며 "보기에 좋은 일보다 시민에게 진정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꼭 필요함에



도 후시 놓치는 일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염에 구슬땀을 흘리며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는 동료 경찰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에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의 얼굴이 바로 경찰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청장은 서울 대일고와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전남지방경찰청 제1부장,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아시아희망나무, 라오스 구호 선발대 출국

### 광주지역 민간단체 처음

광주지역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사단법인 아시아희망나무(이사장 서정성) 해외 긴급구호단 선발대가 라오스 아타프 쉐담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해 최근 라오스로 출발했다. 지난 29일 출발한 이번 해외 긴급구호단 선발대는 사단법인 아시아희망나무 서정성 이사장과 김비오 희망나무 이사(더불어민주당 부산 중·영도구 지역위원장)로 구성됐다. 서정성 이사장은 "라오스 정부가 해외 민간단체의 긴급구호를 받기 싫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인도주의적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선발대를 구성, 라오스 댐 피해 현장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단법인 아시아희망나무 해외긴

## "선생님들이 상습 성희롱 발언"

### 교육청 광주 모 여고 조사

광주의 한 고교 교사들이 여고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광주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관내 A여고 일부 학생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이 학교 교장에게 신고했다. 이 학교에서는 자체 전수조사를 했으며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학생들의 진술이 다수 나오자 지난 25일 교육청에 이를 보고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0	달뜨기	21:43
해질	19:37	달짐	08:28

식물줄 모르는 폭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25/37	보성	맑음	23/34
목포	맑음	27/35	순천	맑음	26/36
여수	구름많음	27/34	영광	맑음	25/36
나주	맑음	24/37	진도	구름많음	25/34
완도	구름많음	26/34	전주	맑음	25/36
구례	맑음	24/37	군산	맑음	25/36
강진	구름많음	24/35	남원	맑음	23/36
해남	구름많음	24/35	홍산도	맑음	26/32
장성	맑음	23/3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부	면바다	북동~동	1.5~2.5	북동~동	1.0~2.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2.0	북동~동	0.5~1.5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1.5~2.5	북동~동	1.5~2.5
	면바다(서)	북~북동	1.5~2.5	북동~동	1.5~2.5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매우높음	
지외선	
미세먼지	좋음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36 21:35	04:24 16:24
여수	04:59 16:53	10:58 23:25

◇주간 날씨

8/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	☀	☀	☀	☀	☀	☀
26/37	26/37	26/36	26/36	26/36	26/36	26/36

## '까사미아' 매트 기준 초과 방사선...원안위 수거 명령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견 가구업체 ㈜까사미아가 생산한 토퍼(두께 10cm 미만 매트) 세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원안위에 자발적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업체가 제공한 13개(토퍼 3개·베개 10개)의 시료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토퍼 2개와 베개 1개가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안전기준을 초과한 토퍼 세트의 제품명은 'cason 메모텍스'로, 2011년도에 흡수량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했으며 총 판매수량은 1만2395개 세트다. 현재 업체는 결함 제품의 수거를 위한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개월 내 전량 수거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수거 조치 이전에 비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6일에는 ㈜티엔아이의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 리콜을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인권위 "극장 작품 해설 행사 장애인에 문자 통역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영화관에서 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을 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문자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영화관에 관련 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청기를 쓰더라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 2급 장애인 A씨는 올해 4월 영화관에서 진행하

는 작품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영화관을 운영하는 회사 측에 문자 통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개인형 보청 기구와 보조인력 등은 지원할 수 있지만, 문자 통역 서비스는 다른 고객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라고 있고, 적지 않은 비용까지 발생해 제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SAMSUNG LG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